백두산

20호 - 주체91(2002)년 5월 4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 ≪한민전≫ 중앙위, 태양절 90돌 기념행사들에 대한 공보발표

##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백두기간≫에 각종 인터넷 위대성홍보물들 제작 배포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기념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가지 기념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한민전 중앙위원회와 각도 시위원회들 각급 조직들과 각계 애국운동단체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심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가운데 14일 태양절기념보고회들을 진행하였다.

보고회장들에는 만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사진이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보고회들에서는 주체의 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송가가 하늘땅을 진감하고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자주통일대장정에 나서고 있는 격동적인 상황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우리 민족과 인류공동의 최대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식민지 암흑의 수난 많던 이 땅위에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 솟아온 대행운의 날이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인류의 공고한 미래를 기약한 역사적인 대경사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위인이 지닐 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혁명가의 거룩한 생애를 수놓아오신 20세기태양의 찬란한 역사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국광복의 은인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주체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뜨겁게 회고하면서 수령님이시야말로 20세기를 대표하는 특출한 위인,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만고절세의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를 지니시고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어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것은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에서도 가장 특출하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대공적이라고 격조높이 강조하였다. 보고회들에서는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두산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을 맞아

백두산 2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탄신 90돌 특집
김일성주석님은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에 관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보고회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망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은 세기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태양의 역사는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고 뜨겁게 지적하였다.

---

보고회들에서는 오늘 주체조선의 권위와 존엄이 하늘에 닿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마련된 것은 희세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탁월한 선군혁명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는데 관하여 지적하고 대를 이어 누리는 영수복, 태양복은 우리 민족만이 받아안을 수 있는 최상의 특전이고 최대의 행운이라고 긍지높이 강조하였다.

보고회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따라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보고회들에서는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와 맹세문들을 채택하였다.

한편 한민전 각급 조직들과 각계 애국운동단체들에서는 기념행사기간에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90돌기념 강연회와 불멸의 혁명업적에 관한 연구토론회,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연구발표회, 비디오시청,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저작 및 사진전, 충성의 노래모임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실정에 걸맞게 조직진행하였다.

기념강연회, 연구토론회들에서는 장장 80여성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겪으시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 민족의 어버이로 천세만세 우러러 모시어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6.15공동선언을 기필코 관철하여 민족자주통일의 새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고야 말 결의들을 굳게 다지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애국운동단체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 것이다≫,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를 비롯한 이북영화시청, 회고록연구발표회, 저작 및 사진전을 통해 민족의 태양이시며 운명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 깊이 새기었다.

태양절에 즈음해 애국운동단체들은 각계 민중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였다. ≪4.15동지회≫, ≪백두회≫, ≪태양회≫, ≪통일애국청년회≫ 등 애국운동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담은 각종 유인물배포,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통한 기념특집조직, 회고카드발송, 대자보와 벽보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진행하였다.

특히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올해를 뜻깊게 빛내일 일념밑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상징하여 올해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90일간을 ≪백두기간≫으로 설정하고 태양절기념특간호 등 각종 인터넷 위대성홍보물들을 제작, 배포하였다.

≪구국의 소리방송≫과 ≪구국전선≫ 인터넷에서는 태양절기념특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각계층 민중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없는 경모심을 더한층 고조시켰다.

한민전 평양대표부에서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12일 내외기자회견을 조직하여 이남민중의 가슴속에 뜨겁게 굽이치고 있는 태양영생의 신념과 태양숭배의 열기에 대해 소개하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6.15공동선언이행의 활로를 열아나갈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결의를 격조높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 기념행사들은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서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따르고 받들어나가는 절대불변의 충성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속에 주체의 태양, 민족의 어버이로 천세만세 영생하실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2002)년 5월 2일

2 종합
-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장병들 축하
-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발표
- ≪한국≫민중들의 정의의 위업을지지
- 베트남주석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 10만명이 펼쳐 보이는 대서사시적화폭
- 전농, 통일쌀 보내기 전국 차량선전
- 미국의 핵탄두탑재미싸일 연구개발
- 일본정부 ≪종군위안부≫범죄책임 부정

5 노작
-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1)

7 세기와 더불어
- 7장 3절 국제당 파견원 (3)

9 칭송
- 또다시 노래하노라 우리의 붉은기 (1)
- 주체사상이 전 세계에 차 넘칠 것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자주통일의 길은 주체성, 민족성 확립에 있다
- 미국의 사냥개 한나라당
-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해나서자
- 역사왜곡행위는 중지돼야 한다

13 투쟁보도
- ≪오노페스티벌≫반미문화제
- FX 사업 ≪최악의 선택≫
- 전농,대북 쌀 300만석 조기지원 촉구
- 전남대학생 금강산 관광

15 운동강좌
-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와 한(조선)반도 정세변화의 전망 (1)

# 김정일최고사령관 5.1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축하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5.1절에 즈음하여 1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 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해군사령부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돌아 보시고 작전지휘실에 들리시여 해군사령관으로부터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군사령부 지휘성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나라에서 해군의 위치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해군무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해군사령부 직속구분대를 시찰하시면서 병사들의 사업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뻐하시면서 전사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온 결과 우리 군대는 필승불패의 사상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시찰을 마치신 후 군인회관에서 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5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해군사령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대단히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지금 당을 받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은 참으로 순결하고 진실하다고 하시면서 이런 군대, 이런 인민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해군사령부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대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김용순비서들과 장성택제1부부장이 동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2일**

#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발표 30돌

##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오늘 우리 민중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없는 경모심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주석님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발표 30돌을 뜻깊게 맞고 있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모든 것을 다바쳐오신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72년 5월 3일 남북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측대표를 친히 만나주시고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출발점으로 되는 근본원칙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고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이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신 것은 주석님의 조국통일영도사에서 특기할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업적이다.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일관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의 전도를 우려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불멸의 통일헌장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중은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가장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를 받아안게 되었으며 미제국주의와 친미사대매국노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게 되었다.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중에게 통일의 서광을 비춰주시고 조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희망찬 새 세기, 21세기에 들어선 오늘에도 우리 민족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할 통일의 기치이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통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길을 여느냐 아니면 미제의 식민지지배와 예속하에 영구분열되고 핵전쟁의 참화속에 공멸하느냐 하는 엄숙한 기로에 놓여있다.

민족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다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높이 민족대단결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성전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염원이었던 조국통일위업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어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억센 기둥을 안겨주시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확고한 통일의지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셨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며 21세기의 통일이정표이다.

오늘 우리 민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고 있다.

우리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구호 드높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핵전쟁도발과 영구분열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민족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것이다.

우리 한민전 전위투사들은 전국민과 함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높이 치켜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주체91(2002)년 5월 3일**
**한민전 대변인 담화**

# ≪한국≫민중들의 정의의 위업을지지

미국로동자세계당대표단,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최근 ≪한민전≫중앙위원회의 호소문과 투쟁구호, 백서가 발표된 이후 남조선에서 반미, 반부쉬투쟁이 벌어 지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4월 25일 평양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한민전≫과 ≪한국≫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전적인 지지성원을 보낸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국≫에서 반세기이상이나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식민지통치는 끝장나야 하며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하에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탁월한 향도 따라 실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악명 높은 ≪반테로전≫에 광분하면서 세계지배전략실현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며 조선통일의 휘황한 리정표인 6.15공동선언리행을 차단하고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는 부쉬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부쉬행정부는 대북적대시정책을 당장 걷어 치우고 ≪한국≫에서 침략무력을 지체없이 철수하며 ≪한≫반도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5월 2일

# 김일성주석께 베트남주석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쩐 득 르엉주석이 2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백남순외무상, 리광근무역상 등이 동행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률이 울리는 가운데 **김일성**주석의 립상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쩐 득 르엉주석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쩐 득 르엉주석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홀에 들어 선 쩐 득 르엉주석은 조선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쩐 득 르엉주석은 **김일성**주석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 드린 훈장들과 메달들, 울음홀과 그이께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시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리용하신 렬차와 승용차를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는 방문록에 남긴 글에서 **김일성**주석께서는 호지명주석과 함께 베트남과 조선의 두 당과 두 인민의 형제적친선의 우정을 꽃 피워 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과 업적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그리고 두 당과 두 인민사이의 친선관계력사에 영생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2일

# 민족의 노래에 비낀 조선의 어제와 오늘

## 10만명 출연자들이 펼쳐 보이는 대서사시적화폭

≪우리 민족력사에서 보기 드문 국보적인 명작, 세계적인 대걸작≫(≪로동신문≫)이 드디여 그 면모를 드러내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화창한 봄날 그 공연의 막이 올랐다. 평양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10만명출연자들이 펼쳐 보이는 황홀한 세계를 체험하였다.

### 눈물의 노래를 행복의 노래로

15만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평양 릉라도의 5.1경기장. 좌석을 꽉 메운 관객들의 기대와 흥분이 최고조에 이른다.

저녁 8시. 어둠속에 국부조명이 비치자 선창가수의 노래소리가 경기장에 메아리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고개를 넘어 간다≫

수난 많고 곡절 많던 민족의 력사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된듯 노래는 관객들의 마음을 파고 든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막을 올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조선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제목으로 한다. 아름답고 유순한 그러면서 처량하고 우아한 조선민족 고유의 정서가 흐르는 아리랑곡조가 조선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인다.

조선은 집단체조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리랑≫공연은 그 주제에 걸맞게 종전에 써 온 창조의 틀거리와 형상수법도 대담하게 혁신했다.

각이한 체조대형들과 조형을 이루며 조선민족의 력사가 직관적으로 안겨 오도록 립체화, 률동화된 배경대가 형상되고 여기에 민족적색채가 짙은 음악과 무용이 배합된다. 그리고 각종 전광장치가 5.1경기장의 거대한 공간에 신비경을 연출한다.

매 장면에 민족의 정서가 비낀 작품은 관객들에게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참모습을 전한다.

≪아리랑≫공연은 그 형상의 하나하나가 조선민족이 체험한 력사적사실과 폭 넓고 깊이 있는 오늘의 생활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한 내용의 진실성이 형식의 독창성과 결합된것으로 하여 ≪아리랑≫은 거대한 위력을 가진 작품으로 완성되였다.

### 단결력이 낳은 걸작

동서랭전체제가 무너진 이후 국제정치의 주요무대의 하나로 부각된 조선,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과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고 있는 조선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세계는 ≪아리랑≫공연을 통해 그 대답을 찾게 될것이다.

작품에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였지만 그뿐이 아니다. 10만명의 방대한 인원이 참가하는 체육예술적형상. 황홀경을 이루는 공연장면과 변화무쌍한 배경대가 펼쳐 보이는 작품은 조선에서만 가능한것이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관객들속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오르군 하였다. 수만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배경대를 그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영화의 화면처럼 보았을것이다. 서방나라에서는 한사람에게 백만금씩 준다 한들 실현 못할것이다.

≪아리랑≫공연은 조선의 단결력이 낳은 작품이다. 관객들은 1시간 20분의 공연시간에 조선이란 나라의 축도를 보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감정을 느끼게 된다.

지난날 외세에 의하여 리별의 눈물을 흘리며 류랑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민족이 이제는 하나로 뭉쳐 자부심에 넘쳐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작품이 아리랑곡조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철학은 심오하다. 종장 ≪강성부흥아리랑≫에서는 오늘의 조선인민이 부르는 또하나의 아리랑이 메아리친다.

≪무릉도원 꽃 펴 가니 흥이로다 아리랑 / 제 힘으로 가꿔 가니 멋이로다 아리랑≫

5.1경기장에 펼쳐 지는 환상과 같은 광경은 나라의 보다 큰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노래한 ≪강성부흥아리랑≫의 가사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보여 주는 진짜 현실이다.

조선신보 2002/05/01

# 농민에게 희망을! 조국에 통일을!

## 전농, 통일쌀 보내기 전국 차량선전

≪농민들이 우리쌀을 이북에 보내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며 인간 양심을 실현하는 길이다≫

2일 낮 12시 20분경 창원 소재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WTO 쌀수입개방 저지, 대북 쌀 지원 촉구를 위한 통일쌀보내기 전국차량선전 경남지역 출정식 및 기자회견≫에서 전농 경남도 연맹 강기갑(52)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강기갑 의장은 ≪냉전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은 허리잘린 조국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통일을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재석(46) 조국통일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건없는 △대북 쌀 300만석 조기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 △WTO 쌀수입개방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 △쌀농업 포기음모인 ≪쌀산업 종합 발전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진주농민회 최운현(49) 회장은 ≪한 가마씩 기부받기 보다는 많은 농민이 동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쌀을 한 되씩 거출했다≫며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짧은 운동기간을 못내 아쉬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정현찬)은 이날 아침부터 광주와 순천을 출발지로 ≪통일쌀보내기 전국차량선전≫을 시작해 각 도청소재지 등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제1조는 순천에서 출발하여 창원-대구-상주를 거쳐 춘천 숙소에 도착했으며 3일은 춘천을 거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행사를 갖는다.

제2조는 광주에서 출발하여 전주-대전-청주를 거쳐 청주 숙소에 도착해 다음날 수원을 거쳐 서울에서 1조와 만나 행사를 갖는다.

이번에 모금된 150여톤의 쌀은 오는 15일 인천항을 통해 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차량선전 첫날인 이날 제1조는 오전 9시 반 해남, 고흥, 순천, 보성 농민회 등에서 8대의 트럭에 쌀을 싣고 순천에 모여 경남도청 소재지인 창원에 도착했으며 창원에서 다시 3대, 대구에서 한 대, 상주에서 3대의 트럭이 합류해 총 14대의 트럭이 차량선전에 합류했다.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안이정선(여) 대구경북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아프간이나 못사는 아프리카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북은 같은 동포인데도 적대국가라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 동포들이 힘과 마음을 합쳐 통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반문한 뒤 ≪남북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이북 먹는 것 지원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212만원과 쌀 200가마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안희준(46) 상주시 농민회 회장은 이북쌀보내기 운동에 ≪농민회 회원들과 리동장협의회와 농협 등 기관단체에서 많이 협력해 주어 한 홉씩부터 거둬 짧은 기간에 50가마를 모았다≫며 ≪일부 사람들이 결식아동 문제도 이야기 했지만 충분히 설명해 설득할 수 있었으며 연세든 실향민들이 적극 나서서 쌀을 거둬줬다≫고 밝혔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5/03

# 미국의 핵탄두탑재미싸일 연구개발에 강경대응

≪민주조선≫ 2일부는 미국이 최근 핵탄두를 탑재한 요격미싸일의 연구개발, 최첨단군사장비들을 개발하려고 책동하고 있는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신문은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 핵, 미싸일공포를 조성하는 한편 지하핵시험을 재개하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데서 조선을 포함한 7개 나라들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고 까밝혔다.

론평의 필자는 이러한 형편에서 핵, 미싸일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들은 물론 핵, 미싸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까지도 이에 대처한 자위적조치를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점 찍어 놓고 그를 실천에 옮기려고 책동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에 따른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있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0.001미리메터라도 침범한다면 그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걷어 치워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5월 2일

#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할 국가적의무를 부정

24일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58차회의에서 안건 17(인권보호증진)토의시에 국제화해기구대표는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본이 감행한 성노예문제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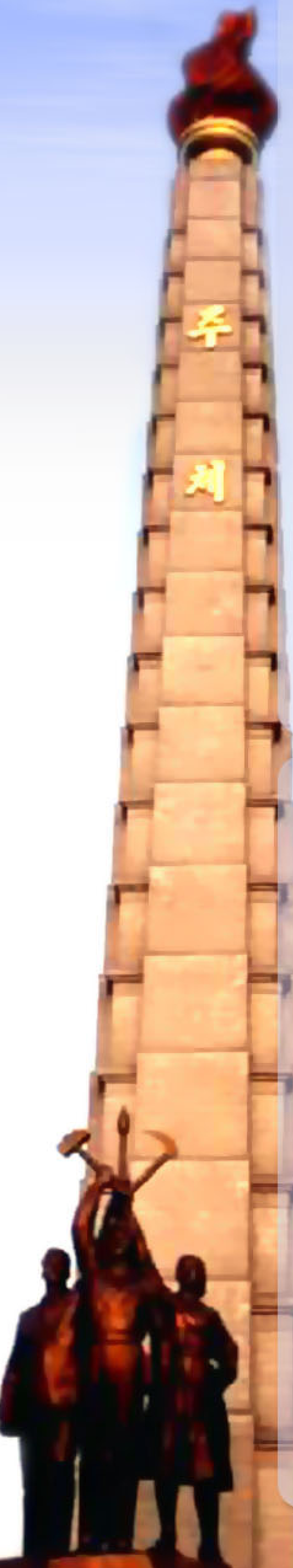
그는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녀성폭행에 관한 특별보고자와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자가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도덕적 및 법적 책임을 명백히 규제하고 국가적보상과 범죄자 처벌, 자료공개 등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일본정부는 엄중한 인권유린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국가적의무를 부정하는 한편 이미 유관국들과 쌍무조약들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내적으로도 시민, 정치단체들의 항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2일

#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1)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 측 대표들과 하신 담화 1972년 5월 3일




## 1.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1)

나는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분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같은 동포끼리 이처럼 만나고 보니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당신이 민족의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무릅쓰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용감하고 대담한 행동입니다. 남조선당국이 북과 남 사이의 정치회담에 참가할 결심을 가지고 당신을 대표로 파견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지난해 8월 6일에 한 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내가 연설한 다음 며칠 지나서 남조선 측이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회담을 하자고 응해 나섬으로써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예비회담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실 머리로 하여 북과 남 사이에 고위급정치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격폐되어 있던 북과 남 사이에 접촉과 대화의 문이 열리고 고위급 대표들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으로 됩니다.

지금 온 민족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열강들의 농락물로 될 수 있으며 두 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질 수 있습니다.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언어와 문화생활의 공통성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말과 글이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다르면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다보니 벌써 북과 남 사이에 말도 달라져 가고 문화와 생활양식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열이 오래 가면 갈수록 언어와 생활양식에서의 차이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해방 후 북반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글자개혁을 하자고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조국이 통일되지 못한 조건에서 글자개혁을 한다면 조선민족이 두 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언어학자들에게 글자개혁을 하려면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하여야지 그전에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조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글자개혁을 하면 북과 남이 서로 다른 글자를 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민족은 두 개의 민족으로 완전히 갈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이 두 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으로 될 수 있습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 대 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첫째로,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외부세력에 의존하여 가지고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내정문제입니다.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수치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외부열강들의 그 무슨 보장을 받아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원래 제국주의 열강들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단결되면 통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열되는 것을 좋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문제를 열강들에 의존하여 풀려고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접촉하여 대화를 하면 능히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열강들의 힘을 빌겠습니까.

우리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조선의 내부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외세의 간섭 밑에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염원과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오직 조선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남조선당국도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며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미국이나 일본의 앞잡이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면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나는 우리 일꾼들에게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 먹는다고 늘 말합니다. 사람이 자주적인 존재로 되려면 남을 덮어놓고 숭배하는 사대주의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리적으로 큰 나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우리 사람들 속에 역사적으로 사대주의가 많았습니다. 사대주의는 해방 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기간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꾸준히 벌여 왔습니다.

해방 후에 있은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방직후에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대주의에 물 젖은 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때 서울에서 박헌영이라는 자는 우리 나라를 다른 나라의 가맹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얼빠진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주었으며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박헌영의 말을 듣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다시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나 않겠는가 하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민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우리는 소련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닌 조선민족의 이익에 맞는 조선식의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전후에 우리가 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았을 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업이 발전된 유럽나라들에서도 아직 농업협동화를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업이 다 파괴된 조선에서 어떻게 농촌경리를 협동화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사대주의자들은 큰 나라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나는 레닌이 한 말을 가지고 그들을 논박하였습니다. 레닌은 농민들의 토지와 농기구를 단순히 통합한 공동경리도 개인농경리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은 레닌주의에 맞는 것이며 우리 나라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어떻게 공업화를 한 다음에 농업협동화를 하는 것만이 협동화의 옳은 길로 될 수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농민들은 협동화를 하여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촌경리가 혹심하게 파괴되었으며 농민들에게는 부림 소도 농기구도 얼마 없었습니다. 부농들의 처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는 농민들이 자원성의 원칙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힘을 합쳐 공동으로 경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

## 우리는 조선민족이 두 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조선사람들은 원래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옛날부터 동네에서 누가 잔치를 하면 모두 부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며 그 집에 찾아가서 축하하여 주고 같이 즐기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에 비록 현대적 농기계는 얼마 없었지만 생활 자체가 농업협동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농민들이 협동화방침을 적극 지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짧은 기간에 비교적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 데서도 사대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얽매일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민족경제를 보호하는 원칙에서,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료를 주어야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원료를 주고 우리의 기계를 사가는 조건에서만 그 나라의 기계를 사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 기술발전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조건에서 발전된 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들에 계속 원료를 대주고 가공품을 사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구멍이 숭숭한 빈 산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구멍이 숭숭한 빈 산을 넘겨 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자립하기 위하여 참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높일 수 없으며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건설분야에서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사대주의는 문학예술분야에서 매우 혹심하게 나타났으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작가, 예술인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은 유럽의 문학과 예술을 숭배하면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지도 않고 조선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한때 시인들은 뿌슈낀을 숭배하였고 음악가들은 챠이꼽스끼를 숭배하였으며 가극을 하나 만들어도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사대주의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일부 미술가들은 풍경화를 그려도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산천을 그렸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내가 어느 한 병원에 가보니 그 병원의 벽에는 큰 나무 밑에 흰눈이 깔려있고 그 위로 곰이 기어다니는 것을 그린 씨비리의 풍경화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꾼들에게 우리 나라에는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하여 이름난 산들이 많은데 왜 조선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려 붙이지 않고 저런 그림을 붙였는가, 저런 그림을 그려 붙여서 인민들을 교양 하는데 무슨 의의가 있는 가고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조선민족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조선민족은 앞으로도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산에서 살아야지 씨비리나 유럽에 가서 살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학예술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들을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국제주의라는 것도 애국주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국제주의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조선사람은 유럽식 예술작품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예술작품은 감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조선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며 조선사람의 민족적 정서에 맞지 않는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이란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 이론투쟁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북과 남 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대 단결을 도모하겠는가 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하려면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야 하며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려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주의 사상을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승공통일≫을 하겠다고 하거나 공산주의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반공≫의 구호를 버려야 합니다.

북과 남은 단결을 방해하는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공통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지난날의 일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시비를 가르려 한다면 북과 남 사이의 간격은 점점 커질 것이며 조국통일은 더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조국과 민족 앞에 엄중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이 진심으로 단결하려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그러한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최근에 남조선당국자들이 ≪자조≫, ≪자립≫, ≪자위≫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자조≫, ≪자립≫, ≪자위≫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정책과 공통되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북과 남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하나하나 찾고 그에 기초하여 단결을 이룩한다면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에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과 남 사이에는 차이나는 것도 많고 서로 오해하고 불신임하는 점도 많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불신임하는 조건에서는 민족의 진정한 단합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한가정도 부부 사이의 두터운 신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서로 신임하지 않으면 같이 살지 못하며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북과 남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려면 북과 남의 당국자들과 여러 인사들이 자주 접촉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무슨 문제든지 다 내놓고 진지하게 의논한다면 오해를 풀 수 있으며 신임을 두터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이번 대화를 통해서도 벌써 북과 남 사이에 적지 않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대화를 할 바에는 좀 일찍이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자들이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남조선당국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이는 일도 없을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꼭 믿어달라고 재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고 지난 시기에 가지고 있던 불신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내일 계속)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 4. 국제당파견원 (3)

반성위는 우리의 인민혁명정부노선이 중국당에서 내놓고 있는 민중혁명정권노선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노선전환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만주 문제의 전략을 밝힌 것으로서 형식상으로는 중국당중앙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국제당이 작성한 것이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국제당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의를 끈 것을 농촌정권기관으로서의 농민위원회를 조직할 데 대한 사상이었는데 농민위원회는 농민과 유격대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평상시 유격대에 식량을 공급하고 무장자위대를 조직하며 당은 전력을 다하여 고농과 빈농을 농민위원회의 지도역량으로 되게하고 그 주위에 중농대중을 묶어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즉 이것은 국제당이 정권분야에서 좌경적인 소비에트 노선의 불합이성을 간파하고 그것을 새로운 정권형태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되며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인민혁명정부노선의 정당성을 실증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반성위는 농민위원회라는 그 명칭 때문에 무척 신경을 썼다. 그는 농민위원회가 소비에트보다 만주지방 실정에 더 적합한 형태인 것은 사실이나 고농, 빈농의 본위로 나간다면 자기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비해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등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계급계층을 다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인민혁명정부 형태가 더 좋고 발전적인 것만큼 정권형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편지로 써서 국제당과 만주성위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까짓 명칭이야 농민위원회건 인민혁명정부건 뭐랍니까. 시책을 인민의 요구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민혁명정부를 내올 수 있는데는 인민혁명정부라 하고 농민위원회를 내올 데는 농민위원회라는 간판을 내걸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당파견원
리기동(반경유)

내가 이런 말로 반성위를 안심시켰지만 그는 종시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총체적으로는 옳은 말이오. 그러나 정권기관의 명칭은 인민의 마음에 들어야 하오. 아무래도 국제당에 이 문제를 상정시켜야 하겠소.≫

그 후 반성위가 결심대로 국제당에 편지를 보냈는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동만의 모든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는 인민혁명정부나 농민위원회로 교체되였고 공농유격대는 반일인민유격대로 개칭되였으며 적위대는 반일자위대로 개편되였다.

반성위의 출현은 유격구의 낡은 질서를 뒤흔들어놓은 회오리바람으로 되었다. 우리가 길림시절부터 일관하게 견지해온 혁명에 대한 주체적 입장은 국제적인 지지와 고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우리가 내놓은 모든 노선과 방침들을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검증받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국제당이 하는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덮어놓고 다 좋다고 하거나 그 지령에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국제당의 처사에 대하여 존중시하면서도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이익의 견지에서 그것을 주체성있게 대하였다.

국제당의 전략이나 처사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석연찮은 문제로 보았던 것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로서의 조선의 존재와 조선혁명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취급방법이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이상으로부터 현실로 되었을 때 만국의 공산주의자들앞에는 10월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그 성과를 세계적 판도에로 확대해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제기되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레닌은 1919년에 제3국제당을 조직하였다. 국제당의 역사적 사명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한 전 세계 노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국제적 범위에서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1, 제2 국제당들이 지니고 있던 사명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는 전투적 사명이었다. 국제당의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당면한 투쟁과업의 하나는 쏘련을 옹호하고 고수하는 것이었다. 승리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의 확대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고 또 그것을 떠나서는 10월혁명의 성과를 세계적 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쏘련을 옹호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구호로 되고 그 구호를 관철하는 것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가피하였고 또 절실히 필요하였던 이러한 관계는 국제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각국 공산당들을 쏘련의 앞잡이로 보거나 민족의 이익을 저버린 배족적인 무리로 치부하는 반공분자들과 부르주아 반동이론가들이 물방아에 물을 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자기들앞에 지워진 국제주의적 임무와 민족적 임무를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했다. 국제당도 역시 이 점을 응당 중시해야 했다. 국제당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감당하려면 승리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는데 모를 박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공산주의운동, 특히 제국주의의 억압속에서 신음하는 식민지 약소국가 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진심을 도와주어야 했다. 그러나 국제당은 이 요구에 낯을 잘 돌리지 않았다. 국제당의 일부 일군들은 큰 나라들의 혁명운동에 대해서는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작은 나라들의 혁명문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제멋대로 처리하였다. 쏘련을 옹호하는 국제적인 성새를 쌓아나가는데서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 매개 나라의 혁명을 대하는 그들의 입장과 태도에서는 너무나도 차별이 많았던 것 같다.

국제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일부 일군들과 이론가들은 큰 나라에서의 혁명운동이 승리하면 그와 인접한 작은 나라의 혁명투쟁이나 독립운동도 스스로 승리하게 된다는 견해를 유포시켰다.

비유해 말하면 팽두이숙과 같은 이치를 담고 있는 견해라고나 할까. 팽두이숙이란 머리가 익으면 귀도 저절로 익는다는 뜻이다.

이런 견해는 작은 나라 공산주의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체를 자기 자신의 힘이며 자기나라 인민의 힘이라는 자주적 입장을 떠나 큰 나라들을 쳐다보는 사대주의적 경향을 낳게 하였으며 큰 나라 공산주의자들속에서는 작은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자주적 활동을 억제하는 대국본위주의적 경향을 낳게 하였다.

사회주의국가의 탄생과 국제공산당 창건이라는 거대한 사변에서 큰 힘을 얻고 그것을 이상으로, 등대로 바라보며 투쟁의 불길 속을 헤쳐가던 각국 혁명가들의 국제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신뢰와 순정에 때가 끼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국제공산당이 창건된 후 공산주의 사조에 대한 축복과 동경의 파도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온 세계를 휩쓸었다. 세계 각국의 이름있는 인사들속에서 공산주의 신봉자 대열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공산주의를 인류의 유일무이한 미래라고 본 시대의 선각자들 중 적잖은 사람들은 소속과 신앙에 관계없이 신생 소비에트공화국이나 국제당과 연계를 자기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우리 나라의 민족주의자들속에도 그 신봉자, 지지자, 동정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 신봉자, 지지자, 동정자의 대열속에는 기독교,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권위있는 인사들도 있었다.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조선예수교대표회의 명의로 서울 정동 감리교 3대 담임목사였던 현순이 참가했던 사실은 하나의 실례로 된다.

현순은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목사로서 상해임시정부가 조직될 때 그 성원으로 선출되었던 사람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 동무들이 몇 해 전에 쏘련의 국제당문서고에 가서 얻어온 자료에 의하면 그는 3.1독립선언서 작성자의 한 사람이었던 김병조를 비롯하여 조상섭, 손정도, 김인전, 송병조 등 목사들의 인장이 찍힌 위임장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현순은 러시아공산당 고려부가 작성한 조사표에 쓰기를 자기가 상해공산당에도 관계하였고 1919년 9월에 벌써 러시아에 와서 삼주일 동안 체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다. ≪목적과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조사표의 물음에 그가 자필로 ≪조선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실시함을 희망함≫이라고 명기한 문서가 우리 동무들

→

에 의해 새롭게 발굴되었다.

물론 그가 공산주의라는 새 사조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상적으로 공감했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제당이라는 존재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도 공산주의운동에 관계한 사람이였다. 그가 고려공산당연합대표회의 결과를 국제당에 보고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대표로 파견되였던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천도교 계통의 혁신세력도 국제당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천도교 1세 교주 최제우의 손자벌이며 2세 교주 최시형의 아들인 최동희는 천도교 혁신세력의 대표인물로서 천도교 비상혁명최고위원회 외무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직접 러영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제당과의 교섭을 성사시켜보려고 맹활약을 하였다. 그는 국제당에서 동양부사업을 보고 있던 가다야마 센과 인젤손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들에게 편지를 내여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해주고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빈천민중의 충복인 천도교≫와 ≪노동계급의 전위인 국제당≫간의 적극적 련락은 동양혁명의 기성을 전적으로 담보한다고 언명하였다.

지어 최동희는 당시 쏘련의 외무인민위원이였던 치체린에게 편지를 써서 15개 혼성여단으로 고려국민혁명군을 조직할 수 있도록 총포, 폭발물, 탄약, 기병장비, 운수수단 등을 2년 안으로 보장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천도교 혁신세력이 수구파의 증오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나가려고 했던 것은 전 민족의 찬양을 받을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쏘련도 국제당도 천도교 혁신세력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몽양 여운형도 1919년에 모스크바에 찾아가서 레닌과 함께 조선독립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었다.

이승만과 같은 반공분자가 한때 소비에트 러시아를 지지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세상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인 것 같다. 언제인가 그가 모스크바에 가서 엄청난 재정원조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묵살당하게 되자 쏘련과 국제공산계에 등을 돌려대고 극단적인 친미 일변도로 나갔다는 자료도 있다고 한다.

쏘련영토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위에 초가 마가리들이 올망졸망하고 여윈 하늘소들이 왔다갔다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제당일군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존재였던 것 같다. 우리가 만주지방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던 그 시기에 와서도 조선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국제당이 작은 나라 인민들의 운명과 작은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하여 무심하게 대하는 것이였다. 그들의 이런 푸대접과 냉담성이 물론 우리로 하여금 혁명에서 주체의 대를 튼튼히 세우고 자력으로 민족해방을 이루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불변의 것으로 만들어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국제당의 처사와 입장을 시답지 않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었던 것, 국제당의 사업조직과 고질로 된 사무실적인 사업작풍이 조선혁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고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하나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저지시킬 수 없었던 것, 이것이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였다. 우리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간절하게 열망한 것은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품고 있는 이런 고충을 이해하고 혁명을 주체적으로 해나가려는 우리의 지향과 확고부동한 결심에 보조를 맞춰주었으면 하는 것이였다.

려운형

이처럼 우리가 혁명실천상에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잡한 문제거리들을 안고 모대길 때 반성위가 동만에 나타난 것은 반가운 일이였다. 어쨌든 반성위를 만난 것은 분명 내 생애에서 의미 있는 사변이였다. 국제당에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였다. 종파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로 핵심을 양성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 대열을 다시 꾸리고 조선사람의 당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나는 특히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그때 그가 우리에게 준 조언들은 나로 하여금 사고와 실천에서 주체적인 대를 더욱 튼튼히 견지하게 하였다. 그때 반성위가 준 영향과 동지적 고무가 아니였다면 우리는 반≪민생단≫투쟁이 스산하게 벌어지던 시기에 조선민족과 우리 혁명의 주체를 옹호고수하여 그처럼 결사적인 투쟁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준 선생이 박소심이고 ≪홍루몽≫을 배워준 스승이 상월 선생이라면 반성위는 조선사람은 조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준 진실한 지지자, 고무자, 동정자였다.

나의 항일혁명사에 반성위를 만났을 때처럼 조선혁명의 운명과 노선문제를 두고 그렇듯 진지하고 열렬하고 심각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반성위는 혁명에 대한 자기 식의 일가견을 가진 흔치 않은 이론가였다. 1930년대의 후반기 우리가 대부대를 인솔하고 백두산 일대에 진출했을 때 반성위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활동했더라면 그는 조선혁명이 직면하고 있는 난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이론실천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을 것이다.

나는 반성위를 만난 다음부터 혁명투쟁을 하는데서는 실천가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을 선도하고 조종해줄 수 있는 이론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소왕청에서의 잊지 못할 담화를 계기로 반성위는 나의 둘도 없는 벗이 되었고 동지가 되었다. 20살 이상의 격차를 가진 우리가 열흘 남짓한 사이에 십년지기 못지않은 벗으로 되고 동지로 된 것은 그 어떤 물질의 힘이나 이해타산의 마력에 의해서가 아니였다. 우리가 태양의 열광같이 열렬한 우정을 지닐 수 있은 것은 조선의 해방과 자유를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염원이 같았고 세상만사를 주견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주체적인 사고방식과 지향이 같았기 때문이였다.

우정의 심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도 아니고 말수더구도 아니다. 오래 사귄다고 하여 우정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며 짧게 사귄다고 하여 얄팍한 우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인간을 대하고 인간의 운명을 대하는데서, 자기 민족과 민족의 운명을 대하는데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과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우정을 배가할 수 있고 파탄시킬 수도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정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나는 반성위가 소왕청을 떠날 때 말을 타고 훈춘경계까지 가서 그를 전송하였다. 반성위가 다리를 조금씩 절며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말을 알선해주었다.

우리는 말을 타고 가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십리평에 이틀 묵는 동안에도 국제공산주의운동 문제와 중국당과의 관계 문제, 특히 조선혁명의 당면 문제와 장래 문제까지 포괄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굳은 맹약도 다졌다.

그때의 소재는 장편소설이라도 엮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십리평이 바로 이범석의 사관학교가 있던 동네였고 오중화네 가문이 피난을 와서 거처하는 동네였다.

반성위는 나중에 가정생활의 비밀까지도 털어놓았다. 그에게는 자기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젊은 아내가 있었다. 그 아내의 이름을 오영옥이라고 하였던지 오봉옥이라고 하였던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반성위에게 40살이 넘어서야 가정을 이룬 까닭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허허, 까닭은 무슨 까닭이겠소. 내가 착실한 신랑감이 못되니 여자들이 다 내 곁을 지나가버린 것이지. 어느 누가 이런 절름발이에게 감히 정을 주겠소. 우리 오씨 부인이 아니였다면 난 장가도 못 들고 허리가 꼬부라질 뻔했소.≫

반성위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다. 어쨌든 그는 자기를 경멸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나는 반성위를 철늦은 사랑에 심심한 동정을 느꼈다.

≪그 오씨 부인이 사람을 보기야 면바로 보았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굉장한 미인이라는데 늦사랑에 깨가 쏟아지겠습니다.≫

≪재미가 이만저만이 아니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먼저 그에게 구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해왔다는 거요. 하여튼 늦사랑이라는 게 별맛은 별맛이야.≫

≪북만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동무는 제발 남성세계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나같은 지각생이 되지 말아주오.≫

≪글쎄요. 나도 지각생이 될지 모르지요. 그게 어디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십리평 풀밭에서 이런 여담까지 하며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의 우정은 더 깊어졌다.

반성위는 그 동안 왕청에 정이 들었다고 하면서 나와 헤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왕청을 떠나서 반성위가 다음으로 가야할 곳은 훈춘과 화룡이었다.

≪김동무의 인상이 일생 동안 내 머리속에 남아있을 것 같소. 왕청에 와서 **김일성**동지를 사귄 게 참 기쁩니다.≫

훈춘-왕청경계를 넘을 때 반성위가 정색해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해서 하는 말이었다.

≪나도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이번 행각이나 끝나면 나도 처를 데리고 동만 땅에 와서 김 동무와 같이 손을 맞잡고 일하고 싶소. 우린 어딘가 닮았소. 때문였거든…. 조선의 ≪호지명≫이 되시오.≫

반성위는 이런 말을 남기고 왕청땅을 떠났다. 그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뒤고 돌아서서 머리 위에 손을 쳐들었다. 첫 상면 때 보던 것과 꼭같은 손동작을 보는 내 마음속에서는 어째서인지 그 동안 퍼그나 많은 세월이 흘러간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 얼굴의 세부와 인상들은 내가 수십 년 전부터 눈에 익혀온 듯한 느낌조차 들었다.

사귄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을 바래주면서 왜 이다지도 마음이 외로와지고 구슬퍼질까 하는 것이 그가 나를 돌아볼 때 내 가슴을 짜릿하게 해주던 석별의 감정이였다. 반성위는 웃고 있었으나 그 웃음은 어쩐지 서글퍼 보였다. 나는 그 미소가 종시 마음에 걸렸다. 차라리 그가 웃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은 더 가벼웠을는지 모른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나와 헤어진 반성위는 훈춘 땅에 가서 불귀의 객이 되어 쓰러졌다.

그를 살해한 것은 훈춘유격대의 대대정치위원이었던 박두남이였다. 노선전환을 토의하는 훈춘현당 확대회의에서 반성위로부터 가장 엄중한 비판을 받은 것이 다름아닌 그 박가였다. 박가는 파벌투쟁의 우두머리라는 낙인을 받고 정치위원직에서 해임되었다. 호위임무를 지닌 병사들이 반성위가 글을 쓰고 있는 숙소마당에서 전리품으로 들어온 38식보총을 구경하고 있을 때 박두남이 그 총으로 국제당 파견원을 쏘았다는 소문이 왕청에까지 날아와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 소문을 들은 나는 반성위와 함께 혁명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던 이치백노인네 윗방에서 하루종일 문을 닫아걸고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추모하였다. (끝)

송시

# 또다시 노래하노라 우리의 붉은기 (1)

내 지나온 세기에
가슴 벅찬 시대를 살아 오며
적지 않게 노래를 불러 왔건만
백번이라도 천번이라도
노래하고 또 노래하리라
붉은기여
위대한 우리의 붉은기여

20세기에 높이 불렀어도
어찌 또다시 노래하지 않을수 있으랴
들으라, 세계여
새 세기의 벽두부터
정일봉의 우뢰소리처럼
강산을 뒤흔들고 누리를 진감하는
붉은기의 저 펄럭임소리를

나는 본다
눈 덮인 백두밀영귀틀집지붕우에
불 밝은 우리 당중앙청사우에
높이 휘날리는 붉은기
온 나라 온 조국땅우에 선풍을 일쿠며
세차게 나붓기는 우리의 붉은기

수령님생각이 더 간절해 지는
새 세기 언덕에서
태양의 빛발아래
높이 휘날리는 붉은기를 바라보니
처음인듯 마냥 자랑스럽구나
밀물처럼 가슴속에 차오르는
자랑스러움을 금할수 없구나

자랑스럽구나
세기와 세기를 이어
내 붉은기를 노래할수 있다는것이
두 세기에 걸쳐
붉은기를 높이 든 우리 민족처럼
존엄 떨치는 민족이 또 어디에 있으랴

장엄하여라
천만이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 세기의 한복판으로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발걸음소리
강산을 뒤흔들고 지축을 울린다

행진은 곧바로-
대오는 천만이여도
발걸음은 하나
도도한 이 흐름을 이끌고 나아가는
기수의 첫 발자욱 첫 발자욱!

흠모

# 주체사상이 전 세계에 차 넘칠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세계 여러 나라의 각계각층 인민들 속에서는 탁월한 사상이론활동과 현명한 영도로 시대와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르며 칭송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에서 주체사상화와 온 세계의 자주화가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고 있다.

우간다 챰보고사범대학 교원들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아우구스틴 오양가투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전세계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와 당신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기적적인 성과에 경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들은 당신께서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제시하신 이론들과 주체사상을 적극 선전할 결의로 충만되어 있으며 주체사상이 우간다와 전 세계에 차 넘칠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난산고등학교 교장 란드레싸 오데뜨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왕성한 투지와 신비로운 지략, 천재적인 창조적 열정을 지니신 사상이론가이신 당신께서는 수많은 고전적 노작들을 집필하시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러한 업적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조선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김정일**주의를 전면적으로 폭넓게 발전시키시였으며 주체의 세계관, 혁명이론, 지도방법을 밝혀주었습니다.

… 각하에 의하여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기치로,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쟈메이커평화이사회 집행부 성원 후렌크 고돈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과 관련하여 그이께 보내온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각하의 탄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당신의 세련된 영도 밑에 조선인민의 찬란한 미래와 온 세계의 자주화를 그려보군 합니다.

… 저는 조선과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 각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 자주통일의 길은 주체성, 민족성 확립에 있다

지금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며 민족이 힘을 합쳐야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걸 절감하고 반미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외세의 이기적 목적에 의해 산생된거죠. 그 외세는 지금도 저들의 이기를 추구해서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있고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세와 공조해서는 언제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반세기가 넘는 분단사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은 조국통일에 사활이 달려 있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 돼서 성취해야하는거죠.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자주통일의 길은 주체성, 민족성 확립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임기수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소원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제는 없다 하겠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 민중에게 막심한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는 분열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걸맞게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주체성을 견지한다는 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민중의 운명을 민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 것이고 민족성을 지닌다는 건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걸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 겁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건 조국통일의 근본담보로 된다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건 우선 조국통일의 본질과 성격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원칙적 요구이기 때문인겁니다.

나라가 분열된 건 미국의 이남강점 결과이고 통일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해 이기적으로 갈라진 영토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조국통일위업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 위업인 만큼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결코 통일의 장애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성보다 더 클 수 없는 거죠. 같은 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켜 통일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바쳐나갈 때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 하겠습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는 건 남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 여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민족성은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거지만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건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통일의 정신적 밑천으로 되는 겁니다.

외세에 의해 본의아니게 갈라져 살고 있는 우리 겨레가 민족성을 적극 내세우고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전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를 잃게 되고 민족이 이질화되어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세에 의해 민족성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주체성,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사활적 요구로 된다는 걸 그대로 실증해준다 하겠습니다.

주체성, 민족성확립이 자주통일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 건 또한 그것이 역사에 의해 그 진리성과 활력이 확증된 노선이라는데 있습니다.

일찍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위업을 영도하시는 전기간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고 이북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자기의 존엄과 영예, 불굴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칠 수 있게 됐던거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건 위대한 주석님의 일생의 뜻이였습니다.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등 모든 통일방침과 방안들은 다 숭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 민족의 통일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진 건 한평생을 통일을 위해 바쳐오신 주석님의 노고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내외 반통일세력의 검질긴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운동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실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조국통일실현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걸 확증해주는 겁니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예지, 현명한 영도력, 고매한 덕망을 지닌 민족의 영도자에 의해 고수되고 구현됩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십여성상 위대한 주석님과 함께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해 오심으로써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태양으로 온 겨레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계십니다.

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라도 앞당겨 실현하시려는 건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철의 의지입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고 그것을 정세가 열백번 변해도 변함없이 확고히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파란만장의 세파속에서도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셔서 자주통일의 길은 창창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며 그분의 향도따라 통일위업수행에 헌신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은 언제 어디서나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해서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완수하고야 말겁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롭고 재능있는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인이 된 자각을 가지고 민족자주통일성업에 한결같이 나설 때 통일은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일**

# 미국의 사냥개 한나라당

부시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삽살개처럼 아양을 떠는 이회창과 한나라당패당을 두고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조소와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반미운동가 김지호씨의 글 ≪미국의 사냥개 한나라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개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사냥꾼은 자기의 사냥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냥개를 이용하고 사냥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냥을 잘해야 먹이를 받아먹고 생존할 수 있다. 사냥개가 없는 사냥꾼은 절름발이나 같은 것이고 사냥꾼이 없는 사냥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사회에도 그런 사냥꾼과 사냥개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한나라당의 이회창패당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 사냥꾼이라면 이회창패당은 미국의 사냥개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조작해낸 ≪대북기본노선≫하나만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대북기본노선에 있는 무슨 ≪분리원칙≫이나 ≪선평화 후교류협력≫같은 것은 북을 고립압살하고 침략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추종한 식민지주구의 사대망상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의 정권과 민중을 분리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 북에서 정권과 체제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모든 노선과 정책작성, 그 집행을 민중의 이익과 민중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가장 민중적인 정권이고 체제이다.

이북 민중들은 자기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고 담보하는 고마운 사회주의정권과 체제를 가장 귀중히며 여기며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일체화 된 여기에 북의 우월성이 있고 공고성이 있다. 그런데 이회창패당이 감히 존엄높은 북에 쐐기를 박아보려는 것은 부시가 북의 사회주의제도를 시비중상하면서 제도변경을 운운하며 줴친 망발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들이 들고 나오는 ≪선평화 후교류협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부시 미국정권은 평화와 대화간판을 걸고 전쟁을 추구하는 호전집단이다. 이회창패당도 부시의 수법대로 평화의 간판을 들고 실제로는 평화는 물론 남북간의 교류, 협력자체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평화를 깨기 위해 그처럼 발광하는 이회창패당이 평화를 운운하는데 대해 분격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사냥개에 불과한 이회창패당의 속셈은 주인인 부시가 시키는대로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을 전면차단하고 남북관계를 계속 대결과 초긴장상태로 몰아가자는데 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한나라당의 역적들이 망상하는 ≪북부개발계획≫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개발의 외피를 쓴 북침통일계획이다. 바로 거기에 미국과 야합해 군사적으로 북을 먹어보려는 흉심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지금 부시호전집단은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부시가 북에 대해 ≪악의 축≫망발을 연발하고 한국을 행각해 최전선을 시찰했는가 하면 북을 핵공격의 주되는 대상으로 규정한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공고하고 휴전후 최대규모의 한미통합전쟁연습을 벌여놓은 것은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에 동조해 나서며 남북대결노선이고 북침전쟁노선인 대북기본노선까지 조작한 이회창패당의 호전적 책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언론들에서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이 냉전적 색채가 분명하고 북침통일론의 성격이 짙다고 평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부시정권이 등장하기 바쁘게 그들의 대북강경정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미국이 떠드는 북에 대한 상호주의와 투명성, 검증을 앵무새처럼 외우며 미국의 충견임을 자랑하던 이회창이고 보면 그 패당이 달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친일매국역적인 애비의 기질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이회창은 미국을 행각했을 때에도 북을 먹어보려는 미국의 사냥개역을 놀았다. 하기에 그는 북은 변한 것이 없다느니 북의 핵개발에 대비해야 한다느니 휴전선일대에서 북의 상용무력후퇴배치니 뭐니 하는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망발을 일삼아오면서 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별의별 추태를 다부렸다. 부시의 한국행각이 끝난 직후에는 총재단회의라는 것까지 벌여놓고 미국의 북침전쟁흉책을 지지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도 미국의 북침핵전쟁을 실무집행하기 위한 집행문서이다.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대결을 고취하며 미국의 사냥개노릇을 하는 이회창패당은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한 존재이다. 남북대결과 북침전쟁을 획책하는 이회창패당에 대해 그 상전인 미국은 전쟁을 두드려줄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동족을 해치려는 미친 사냥개는 하루빨리 잡아버려야 한다.

각계 민중은 미국의 훈령에 따라 짖어대며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는 미국의 사냥개 이회창패당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이회창과 그 패당은 사대매국과 반통일의 죄값을 민족앞에 치룰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일**

#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해나서자

최근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강도높게 규탄하고 무기강매의 본질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보잉사의 ≪F-15K≫기를 선정하도록 강박해나선 것은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북침전쟁책동을 가속화하는 행위로써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우리 민중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무기강매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을 미국의 전쟁수레바퀴에 얽어매는 전쟁공조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무기강매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치 드높이 민족공조와 대단결을 실현하여 민족앞에 드리워진 전쟁공멸의 위기를 타개해나가자고 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미국을 반대해 투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총련, 사회민주주의연합,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여러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무기강매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광주전남지역대학생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각계 민중이 미국의 ≪F-15K≫전투기강제판매에 항의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그들은 미국이 여러 통로를 통해 ≪F-15K≫전투기를 한국에 강제로 팔아버리려 하고 있는데 대해 폭로규탄하고 이를 반대해서 미국상품불매운동을 벌일것을 결의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그들은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F-15K≫전투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각계층 민중의 이같은 투쟁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써 지극히 정당한 애국투쟁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보잉사의 ≪F-15K≫기를 강매하도록 요구한 것은 폐기처분할 위기에 처해있는 차세대전투기를 어떻게해서든지 한국에 압력을 가해 팔아먹으려는 일방적이고 오만한 패권적 작태입니다. 이것은 또한 부시행정부가 ≪F-15K≫전투기강매를 통해 군수산업체의 하나인 보잉사의 이익을 챙겨주고 나아가서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 침략자, 전쟁광신자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각계층 민중은 한반도에 이처럼 엄중한 사태를 몰아올 부시정권의 ≪F-15K≫전투기강매책동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며 또 절대로 용납해서도 안됩니다. 우리 민중이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이 가져올 악결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 통일을 이룩하기는 고사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서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이게 될 것이고 더욱이 새로운 침략전쟁, 북침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각계층 민중은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의 본질과 목적, 그 위험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더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전투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어느 몇몇 단체나 한두사람에게 부과된 과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앞에 나선 성스러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의 참가하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모든 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이 참가하여 벌여나감으로써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조직전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이며 대중적인 반미반전항전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무기강매압력에 굴복해서 기어이 ≪F-15K≫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군당국과 친미사대주의자들의 매국행위와 비굴한 처사를 폭로규탄하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끌어들이려는 군당국과 친미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민족의 공멸을 획책하는 부시정권의 북침전쟁책동에 추종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입니다.

그런만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은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고 군당국의 전투기도입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각계층 민중은 반미투쟁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일**

# 역사왜곡행위는 중지돼야 한다

지금 일본이 논의의 여지도 없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저들의 영토라고 집요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까지 기술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독도가 저들의 영토라는 걸 주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반동지배층의 음흉한 목적이 숨어 있다 하겠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역사왜곡행위는 중지돼야 한다≫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일본반동들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또다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우리 민중은 물론 아시아나라 민중들 속에서 강한 반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역사왜곡행위는 중지돼야 한다, 이런 화제로 얘길 나눴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를 검정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검정에서 통과된 ≪최신일본사≫는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토를 다케시마로 표시하고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을 했어요. ≪최신일본사≫는 또 고대 일본이 한반도의 남도를 지배했다는 설을 여전히 주장을 했는가 하면 일제강점시기의 종군위안부 피해여성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 역사교육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그들이 바른 길로 나가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나라와 민족이 걸어온 역사를 잘알게 해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데서 역사교육은 자못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새 세대들에게 거꾸로 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무서운 범죄행위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 만들어진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갖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교육을 하면 그들 역시 비뚤어진 역사관을 갖고 그와 같은 범죄역사를 되풀이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역사평가문제에서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사회자 :** 역사왜곡책동은 무서운 범죄행위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본 반동들은 역사교과서에서 거꾸로 된 저들의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서 과거범죄행위에 새 범죄를 덧쌓고 있잖아요.

**윤정원 :** 사실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건 역사적 자료와 지리적 사실, 국제법적 원칙에 비춰봐도 잘알 수가 있는건데요. 역사적 문헌인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 ≪만기요람군정편≫, ≪증보문헌비고≫에는 독도가 우리 나라의 영토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지리적으로도 독도는 북위37도14도18초, 동경131도52도52초 지점에 있거든요. 독도는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95킬로미터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운지도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16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안수로지≫에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사회자 :** 특히 일본반동들은 ≪최신일본사≫에서 종군위안부범죄행위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윤정원 :** 종군위안부문제로 말하면 과거 구 일본군이 근20만명의 우리 나라 여성들을 강제 납치해다가 황군의 성노리개로 이용한 범죄행위죠. 그런데 일본놈들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구 일본이저지른 종군위안부범죄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대로 묻어버리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군위안부생존자들은 일제야수들을 천하에 둘도 없는 인간백정들이라고 하면서 과거일제의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그들의 피타는 절규를 귀담아듣고 성근한 사죄와 보상을 할 대신 그것을 은폐의 목적으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문제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건 일본반동들이 과거죄행위에 새로운 죄를 덧쌓는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행위예요.

**사회자 :** 오늘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건 인류의 염원입니다. 이런 데로부터 세계 진보적 인류는 지난날 세계 많은 나라 민중들에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나갈 걸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계속 역사왜곡책동에 매달리면서 시대와 인류의 정당한 요구에 정면도전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일본지배층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써 평화를 반대하고 침략전쟁의 길로 나가는 저들의 범죄적 기도를 다시한번 드러내 놨습니다. 그들의 역사교과서왜곡을 반대하는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역사교과서를 왜곡한 것은 평화를 파괴하고 인류양심을 모독우롱하는 그런 행위라고 봐져요.

**사회자 :** 일본반동들이 역사왜곡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건 어떻게해서든지 지난날 이루지 못한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이 이루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우리 나라 영토를 저들의 영토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때 그것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하는 건 너무나 명백한 것 아닙니까. 일본반동들은 거꾸로 된 역사교육을 통해 일본의 청소년들속에 침략사상을 심어줘서 그들이 어느때든지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거예요. 이런 속셈으로부터 그들은 역사왜곡책동에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는 거죠.

**사회자 :** 제반 사실은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국민들은 일본반동들의 역사교과서왜곡책동의 본질을 잘알고 이걸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일본은 아시아의 이웃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21세기를 살아나가자면 지난날의 죄많은 역사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보상해야 할겁니다.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죄행을 인정도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파멸의 함정에서 영영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8일

# ≪오노페스티벌≫ 반미문화제

네티즌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준비돼온 반미 문화제 ≪오노 페스티발≫이 경희대 교정에서 막을 올렸다. 3일 오후 3시 서울 회기동 경희대 캠퍼스 곳곳에서 한민족네티즌협의회,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카페,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 해태제과소액주주모임, 그림공장 등 이번 행사를 준비해온 청년 네티즌 단체들이 갖가지 행사로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미국바로잡기운동본부(www.ricemi.com)는 ≪미국이름바꾸기≫란 주제로 스티커 붙이기 행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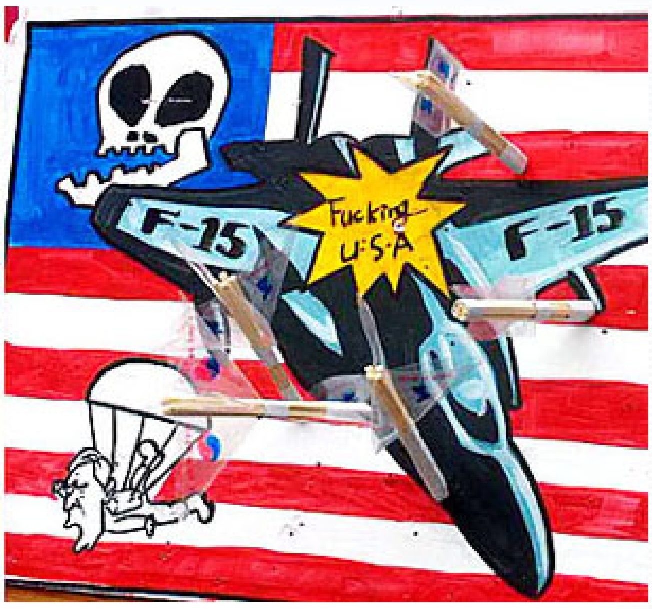
조해상씨는 ≪미국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국바로잡기운동본부에서는 미국에 쓰이는 아름다울 美자를 쌀米자로 바꾸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커 많이 붙여 주세요≫라고 외치며 지나가는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축제에서 지난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금메달 강탈사건으로 전국민의 비판을 한꺼번에 받은 바 있는 안톤 오노의 사진은 다트판, 널뛰기판등으로 폭넓게 활용되며 참가한 네티즌이나 학생, 시민들로부터 수난을 당하는 ≪오노의 수난시대≫를 예고했다.

해태제과 소액주주운동본부(www.htjuju.com)는 오노가 그려진 다트판을 설치하고 맞추는 사람에게 상품을 증정하며 지난해 10월 해태제과가 외국계 투자펀드에 헐값에 매각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나갔다.

한국네티즌협회도 오노 다트판을 준비해 다트에 맞추면 오노가 새겨진 화장지를 증정하고 F-15K전투기 구매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나던 학생과 시민들은 오노 맞추기 행사를 지켜보면서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재밌지만 반미운동이 감정적이고 일회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 시민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아도 반미운동이나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학생과 청년네티즌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

한세대학교 반미자주 동아리 도들볃에서 참가한 이정은씨(동물생명자원학과)는 ≪활동하는 동아리가 반미동아리인 만큼 관심도 많고 불매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반미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총련, 한국네티즌협회에서는 부시와 오노가 그려진 널뛰기판을 준비해 널뛰기를 진행하고 참가한 사람에게 8.15콜라를 상품으로 증정했다.

4시가 되자 경희대 정문 앞에서는 발광페스티발이 열렸다. 발광페스티발은 블랙테트라의 오프닝무대를 시작으로 경희대 국문과 유호정씨와 이진호씨의 사회로 용가리패밀리, 지랄발광, 경희대 율동패, 태극기 등이 출현했다.

발광페스티발을 마치고 7시에는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자전거탄풍경, 박성환, 비갠후, 우리나라, 타카피, 우미진, 조국과 청춘, 기만서, 레이지본이 출연해 공연 한마당을 펼쳤다.

반미 문화제 ≪오노 페스티발≫은 4일까지 경희대 교정에서 계속된다.

**김윤희기자**
**시민의 신문 2002/05/03**

# FX 사업 ≪최악의 선택≫

## F15에 ≪GE 엔진≫ 장착 결정…안전 · 비용 · 운용 면에서 문제투성이

국방부는 차기전투기(FX) 사업 최종 기종을 미국 보잉 사의 F15로 결정했다. 2009년까지 44억7천만 달러(약 5조8천억원)를 투입해 F1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보잉과 협상이 끝나는 6월 중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본계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최종 발표가 나오자 그동안 기종 결정 연기를 주장해온 참여연대 등 2백79개 시민단체 연합체(FX공동행동)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발표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앞으로 ≪F15 반대 운동≫을 전개해 여론의 힘으로 대통령이 기종 결정을 재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FX사업을 둘러싼 진통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연합체인 ≪FX공동행동≫은 F15를 FX 사업 기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권력형 비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F15 전투기에 장착될 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투기 기체는 보잉 사 F15를, 여기에 장착할 엔진은 제너럴일렉트릭(GE) 사의 F-110-GE-129로 선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계에 실전 배치된 F15 기종 중 지금까지 GE 사의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다는 점이다. 1974년 미국 공군에 처음 배치된 뒤로 27년간 4개국 주력 전투기로 활약해온 F15 기종 1천5백여 대의 엔진은 모두가 피렛 앤드 휘트니(PW) 제품이다. 이 엔진은 그동안 총 1천7백60만km 비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다. 미국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인 F22와 JSF 기종에 장착할 엔진도 GE를 제치고 PW로 확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기종 결정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GE 엔진을 장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GE 엔진이 F15 전투기에 장착된 적은 없지만 미국 공군의 2천시간 시험 평가에서 통과해 문제가 없다≫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명이 8천 시간인 전투기 엔진은 고장이 발생하는 부분이 시간대 별로 달라 2천 시간 시험 평가로는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PW 엔진을 선택하면 고장이 나더라도 미국 공군에 책정된 설계 변경 예산을 쓸 수 있지만, GE 엔진을 장착하면 그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장이 나면 한국이 설계 변경을 위한 추가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비싼 돈을 들여 GE 엔진의 위험성과 성능 등을 시험해 주고,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한국이 뒤집어쓰겠다는 꼴이다.

공군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GE 엔진을 선정한 이유로 그동안 국내에서 PW 엔진을 장착한 F16 전투기 3대가 떨어졌다는 점을 든다. 1991년 한국 공군이 도입한 F16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은 PW 제품이었다. 이 중 한국에서 조립된 F16의 동일 기종 KF16 3대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GE 엔진을 장착한 F16 기종 역시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엔진 결함으로 8대나 추락해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특히 국방부가 기종을 발표하기 나흘 전인 4월15일 일본에서 추락한 항공 자위대 소속 F16 전투기 엔진은 바로 한국이 이번에 선택한 GE 사의 F-110-GE-129 엔진이었다. 결국 GE 엔진을 선택할 객관적인 이유가 별로 없는 셈이다.

국방부가 강조해온 주한미군 무기와의 상호 운용성 면을 보더라도 GE 엔진으로 결정한 것은 모순이다. 주한미군 공군이 보유한 모든 F15 전투기에는 PW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GE 엔진으로 결정하면 미군과 엔진 부문에서는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고 후방 지원도 받기 어려워진다. 또 PW 엔진 조립 생산 라인은 이미 국내에 있지만 GE 엔진을 선정하면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처럼 GE 엔진으로 결정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속된 최규선씨가 김동신 국방부장관 공관을 드나든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짙어가고 있다

**정희상기자**
**시사저널 제653호 (2002/05/02)**

# 통일염원 담긴 쌀, 서울 입성

## 전농,대북 쌀 300만석 조기지원 촉구 기자회견

≪많은 도(道)연맹의 동지들이 너무나도 활기차게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 농민조직이 아니면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콧등이 찡했습니다.≫

이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일부터 1박2일 동안 통일쌀 보내기 전국 차량 선전 투어를 이끈 동쪽단장 기원주 광주전남연맹 부의장은 인사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통일연대는 3일 오후 2시 국회앞 국제빌딩 옆에서 ≪WTO 쌀수입개방 저지, 대북 쌀 300만석 조기 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통일쌀 보내기 전국 차량선전 투어단의 서울 입성에 맞춰 가졌다.

대회사에 나선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천리 대행군이었다≫고 첫 말문을 연 뒤, 이번 사업을 통해 ≪농민들이 직접적이고 실천적으로 민족공조의 물꼬를 텄다≫고 격려했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동지들을 보니 108년전 갑오년 농민군이 생각난다≫며 ≪이제 농민들의 한을 씻고 동지들이 한양에 입성했다. 동지들의 민족사랑, 민족에 대한 정성은 새로운 전기를 이룰 것≫이라고 고무되어 말을 이어갔다.

또 최근 문제가 된 ≪F-15K 구매를 통해 가만히 앉아서 1조 6천억원을 사기 당했다≫며 ≪이 돈이면 쌀 1900만 가마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북쪽에 쌀 보내는 것에 인색한 정부를 오 상임의장은 비난했다.

정현찬 전농 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대북 쌀 300만석 이상을 조속히 지원할 것 △4.18 쌀산업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통일대비 양정제도 수립할 것 △WTO 쌀수입개방 획책 중단과 농업회생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 문경식(전농 부의장) 공동대표의 결의발언

좌측부터 정현찬(전농의장),오종렬(전국연합상임의장),
김준기(미군기지 신설확장반대와 우리땅 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이 있었다.

문경식 공동대표는 통일쌀 보내기 운동에서 보여줬던 농민들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이 쌀속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들어 있기에, 어느 쌀 2천만섬보다 4천여섬의 이 쌀이 중요≫하다며 ≪우리 투쟁이 전남~강원도를 거쳐 여기에 왔지만 다시 돌아가면 농민과 농민단체가 함께 우리 쌀을 지켜내고 민족농업을 살려내고 통일조국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평택에서 30,40 가마를 모아왔다는 이근량(농민회)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북에) 쌀 보내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어진 것을 보며 농민들도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과 ≪쌀문제가 심각해지니 어떻게든 해결해서 같이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흐뭇해했다.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마치고 나자 각 도에서 올라온 회원들은 서로간의 노고에 대한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의도 집회 이전에 1조와 2조는 각각 수원과 춘천에서 집회와 가두선전을 가졌다. 1조 통일쌀 보내기 차량선전단은 3일 오전 춘천시가지에서 차량 가두홍보에 이어 10시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파주농민회 박남길(40) 회장은 ≪좋은 일을 한다고 이장협의회장단들이 많이 도와줬고 교장과 교사들이 적극 호응해 지역학생들 8-90프로가 참여해 150여 가마를 모금했다≫며 ≪철원은 통일의 길목이라며 대개 좋아들 했다≫고 밝혔다.

전농에 의하면 이번 전국 쌀 투어를 통해 모아진 쌀은 160여톤(400여가마)으로 오는 15일 인천항에서 출항식을 가진 후 이북의 남포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5/03**

# 전남대학생 금강산 관광

버스로 7시간을 달려 도착한 동해바다. 금강산 출발을 앞두고 바라본 일출에 설레임은 더해간다. 속초항에 정박한 설봉호를 바라보는 이동석군은 ≪주위에서 가지 말라고 잡을 때 뿌리치고 온 것 다행이다≫며 밝은 얼굴이다. 금강산 가면 ≪여자 안내원 전화번호를 묻고 싶다≫는 짖궂은 그의 표정만큼이나 화창한 날씨다.

설봉호에 올라 고성항으로 향하는 동안 갑판위에서 동해의 해변에서 함께 배운 통일춤을 추는 참가단. 함께 배에 오른 시민들도 열심히 박수를 치며 북으로 향하는 오후의 햇살을 쬐고 있다. 멀리 보이는 육지, 그리고 이북 안내선을 향하는 참가단들의 ≪반갑습니다≫는 노래소리에 반세기만의 만남이 실감나기 시작한다.

≪전남대 금강산 모꼬지 참가단≫이 드디어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이라는 글발-이북에서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이렇게 부른다-이 시야에 들어오는 고성항에 도착했다. ≪달나라에 온 듯 어느 발을 먼저 딛을까 고민했다≫는 류승룡군의 마음처럼 낯선 땅, 설레이는 2박 3일이 시작됐다.

≪저기 저 아이 좀봐~귀여워≫ ≪인민군이다!≫ ≪어, 여기도 자전거 있네?≫ 온정각으로 향하는 버스가 양지마을을 지날무렵 버스 안의 참가단은 외계인이라도 나타난 듯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호텔 해금강의 객실 창밖으로는 설봉호가 정박한 고성항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숙소에서 간단히 짐을 푼 후 전민특위에서 활동중인 이신씨의 통일 강연회가 진행됐다. 이 씨는 ≪학생들이 태백산맥, 한반도, 이북 소설인 대학생활 등을 읽으면서 이북을 알아가는 노력이 있다면 통일은 훨씬 순조로울 것≫이라고 당부해본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듯한 찌푸린 날씨에 걱정스럽던 출발과는 달리 만물상 가득 내리쬐는 햇살이 금강산을 오르는 우리를 반겼다. 구름바다를 이루는 만물상의 장관을 바라보던 백승현군은 ≪신선들이 노는데 온 것 같다≫며 조장(현대 아산 여행 가이드)이 들려주는 삼선암의 전설에 빠져든다.

이북 사람들과의 만남을 ≪처음엔 말걸기도 겁나고 낯설었다≫는 임옥현군은 ≪그들이 박관현 열사나 박승희 열사를 알고 자랑스러워 해주는데 그땐 정말 새내기때 낯선 친구들이 단짝되는 친근함이 절로 나왔다≫고 산행길의 느낌을 말한다.

유상윤양은 ≪내가 만난 이북 사람은 우리랑 하나도 다른 것 없이 정겨웠다≫며 산행을 마치고 ≪서울에서 평양까지≫라는 노래에 맞춰 통일춤을 함께 춘 이북 안내원을 이야기한다.

산행을 마치고 관람한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 관람 전에는 ≪텔레비젼에서 보는 서커스라고 생각했다≫는 윤지혜양은 ≪그들이 손을 흔들고 웃어주는 것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말한다.

마치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오르듯 장대를 올라가는 남성 교예단원들의 장대재주, 2번이나 실수를 했음에도 큰 박수가 쏟아지던 공중2회전 등의 묘기.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외국의 서커스 공연과는 달리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은 금강산을 찾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된다는 안타까움이 더 감동을 몰고 온 듯하다.

≪장대재주를 할 때 펼쳐진 한반도 그림위에 쓰인 하나라는 말에 코끝이 찡했다≫는 박성민군은 ≪교예단처럼 가슴에 와 닿는 풍물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한다.

금강산에 놀러온다고 신났던 김광명군은 ≪통일을 말로만 할거냐는 이북 안내원의 말이 매웠다≫며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금강산의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느낀 그대로의 이북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 이재명군은 ≪직접 이북 사람들을 만나면서 통일공부 했다≫고. 금강산에서 피부로 느낀 통일을 이야기하느라 깊은 밤 호텔 해금강의 불빛은 꺼질줄을 모른다.

고동을 울리며 고성항을 떠나온 설봉호 갑판에 올라봐도 ≪이젠 기차 타고 오겠다≫며 희망을 담아 헤어짐을 위로했던 해금강, 삼일포, 그리고 우리의 반쪽 동포들이 어렴풋하다. ≪다음에 와서는 함께 사진도 찍고 밥도 같이 먹고 싶다≫는 김충효군의 작은 바램이 어느새 군사경계선을 지난다는 안내방송 너머 북녘땅 반쪽 동포와 나눌 날을 기다리는 염원으로 다가온다.

**전남대 백지선기자**
**유뉴스 2002/05/03**

#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와 한(조선)반도 정세변화의 전망 (1)

차 례


▶ (1)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 (2) 다시 민족주체적 정세관으로 돌아가서

(3) 2002년의 한(조선)반도 정세가 예고하는 것


## (1)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2002년 1월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미국 연방 상원의 정보특별위원회에 13개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의 종합정보보고서인 ≪국가정보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제출하였다. 이전의 국가정보보고서는 1999년 9월에 발표된 바 있다. ≪2015년 미국에 대한 외국의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위협≫이라는 제목이 달린 이 비공개 정보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이 이 국가정보보고서의 공개문건을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고서에서 한(조선)반도의 정세인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첫째, 국가정보보고서에 의하면, 북(조선)은 핵무기급 탄두를 탑재하고 미국 본토의 태평양 연안을 타격할 수 있는 다단계 대륙간 탄도미사일(국가정보보고서에서는 ≪대포동 2호≫라고 표기함)을 ≪시험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may be ready to test)≫는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보고서는 2002년부터 2015년 사이의 기간에 북(조선)이 발사할 사거리 1만2천 킬로미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둘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 북(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국가정보보고서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조선)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이미 한 두 개의 핵무기를 생산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하였다. 이 국가정보보고서에 관한 보도내용을 실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02년 1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2000년 4월에 미 중앙정보국 고위관리가 처음으로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그때에는 그의 발언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 북(조선)이 핵무장국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정보보고서는 이란과 이라크도 북(조선)과 마찬가지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두 나라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역내 적대국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북(조선)이 이란, 이라크 같은 반미국가들과는 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군사강국과 격이 같은 신흥군사강국, 즉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핵공격에 맞서고 있는 신흥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신흥군사강국인 북(조선)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지적되었는데도,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은 북(조선)을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고 지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나온 국가정보보고서가 북(조선)을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지목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가정보보고서는 미국이 이른바 ≪깡패국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느끼고 있는 위협보다는 반미테러집단이 선박, 트럭, 항공기 같은 비(非)미사일 수단을 이용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위협평가에는 ≪9.11 테러사건≫에서 받은 엄청난 충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를 보도했던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나온 국가정보보고서가 제기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의 당면한 위협이 이른바 ≪깡패국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반미테러집단이 선박, 트럭,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테면≪워싱턴 포스트≫ 2002년 1월 11일자는 관계기사의 제목을 ≪미국은 위협에 대한 평가를 변경하였다: 중앙정보국에 따르면, 비미사일 공격이 더 가능하다(U.S. Alters Estimate Of Threats: Non-Missile Attacks Likelier, CIA Says)≫라고 달았으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02년 1월 12일자는 관계기사의 제목을 ≪보고서에 의하면, 미사일은 가장 심각한 위협이 아니다(Missiles Not Biggest Threats, Report Says)≫라고 달았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워싱턴 포스트≫다. 이 신문에는 2002년 1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문제와 관련한 장문의 기사 두 편이 실렸다. 13일에 나온 첫 번째 기사는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에 대한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의 평가가 어떻게 과대포장되었는가를 폭로하는 내용이며, 그 이튿날인 14일에 ≪정치권은 위협을 재정의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How Politics Helped Redefine Threat)≫라는 제목으로 실린 두 번째 기사는 ≪럼스펠드위원회 보고서≫와 1999년도 국가정보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분석・비판하고 있다. ≪럼스펠드위원회 보고서≫는 북(조선)이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3단계 우주발사체인 ≪백두산 1호≫에 탑재하여 발사하기 직전인 1998년 7월에 나온 것이며, 1999년도 국가정보보고서는 ≪백두산 1호≫의 발사 이후에 나온 것으로서 미국에 대한 북(조선)의 ≪미사일 위협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문건들이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권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언론매체인 ≪워싱턴 포스트≫가 ≪럼스펠드위원회 보고서≫와 1999년도 국가정보보고서의 ≪미사일 위협설≫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북(조선)의 ≪미사일 위협설≫의 논리적 근거를 뒤흔들어놓은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가 미국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협은 북(조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테러집단의 테러공격이라고 지목한 것과 ≪워싱턴 포스트≫가 북(조선)의 ≪미사일 위협설≫의 논리적 근거를 뒤흔들어놓은 것은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

둘째,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는 북(조선)이 ≪백두산 2호≫(국가정보보고서에서는 ≪대포동 2호≫라고 표기함)의 발사를 2003년까지 유예한 조치에 의하여 조・미 협상이 진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 북(조선)을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의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나는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 이 대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매우 중시한다.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가 북(조선)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였으면서도, 북(조선)이 미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고 지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미 정치협상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결코 논리적으로 모순된 인식이 아니다.

그러한 현상의 밑바탕에는 미국이 북(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한(조선)반도에서 첨예한 적대관계를 유지하여왔던 종래의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함으로써 국교수립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미국의 궁여지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4,000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1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은 미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를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지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그 두 나라를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기는커녕 그 두 나라와 국교를 수립하고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미국은 자기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군사강국들에 대해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교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러・미 관계와 중・미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은 자기들이 침략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군사강국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지 않고 적대정책을 펴지 않으며, 침략전쟁의 대상이 될만한 약소국들에 대해서만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적대정책을 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군사전략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기묘한 역설≫(strange paradox)이다.

이 기묘한 역설은 오늘 한(조선)반도의 정세인식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북(조선)이 핵무기와 대륙

→

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던 지난 시기에 미국은 북(조선)을 침략전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규정하였으며 적대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북(조선)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신흥군사강국으로 등장한 지금 미국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미국은 북(조선)을 침략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북(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이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조・미 관계에 관련한 중요한 인식변화의 내용이다.

## (2) 다시 민족주체적 정세관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미 지난해에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사실을 자료분석에 근거하여 내 나름대로 치밀하게 논증한 두 개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나는 그 두 논문에서 북(조선)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무력위협에 눌려 일방적으로 봉쇄와 압박을 겪고 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무력위협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신흥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를 읽으면서 나는 그러한 나의 인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한(조선)반도의 정세에 관한 나의 견해는, 그 동안 이러 저러한 기회에 발표한 나의 여러 논문들에 들어있는데, 그 논문들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에 전 세계를 제국주의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신흥군사강국으로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하여 세계 지배야욕의 기세가 꺾이면서 한(조선)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전략과 전쟁계획(≫윈-윈 전략≫과 ≪5027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미 정치협상의 자리에 끌려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해에 등장한 부시 정권은 북(조선)이 클린턴 정권과 7년 동안이나 수많은 고비를 넘으면서 정치협상을 추진한 끝에 이룩한 최대의 성과인 조・미 공동성명을 외면하고 조・미 관계를 개선하는 길에 난관을 조성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돌출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은 머지 않아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조・미 국교수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정세전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셋째, 북(조선)이 신흥군사강국으로 등장하여 조・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역사의 우연한 현상이 절대로 아니고, 어디까지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이 이룩한 성과라는 사실이다.

나는 언제나 민족주체적 정세관에서 조・미 관계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민족주체적 정세관이란, 북(조선)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근본목적을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관점을 배격하고 민족주체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친북적 관점≫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민족주체적 관점에서는 친북이니 친남이니 하는 민족분열주의적 관점이 원천적으로 파기되며 친북, 친남을 갈라놓고 정세를 파악하려는 자기분열적 정세인식은 배제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족주체적 정세관을 가지고 북(조선)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근본목적을 이해하면 어떠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북(조선)이 신흥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한(조선)반도의 정세인식에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오늘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정세인식의 방향과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이 문제에 관한 나의 인식과 전망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북(조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에 의하여 신흥군사강국으로 등장한 현 정세의 변동방향은,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북(조선)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봉쇄와 압박에서 벗어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한(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역사발전의 지향점을 향하여 꾸준히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정세인식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이 조・미 정치협상을 진전시켜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남(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구도를 폐절하고 한(조선)민족 전체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민족적 차원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1세기 초반에 기필코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함으로써 한(조선)민족의 절절한 숙원이며 21세기의 민족사가 지향하고 있는 총적 목표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 삼천리 강토 위에 부흥강성하는 연방통일대국을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 이것이 나의 정세전망이다.

이러한 나의 인식과 전망은 주관주의적 해석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정세변화의 실상이다.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는 그러한 정세변화의 일단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일 계속)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01년 1월 19일 작성

광 고

# 6.15주간

## 제45호 (4.26~5.2)

**노작**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특집1 -민족통일전선의 어제와 오늘**
민족대단결,그 뿌리
민족대단결의 조직체 조국광복회
조국광복회의 창립의미와 역사적 경험
해방후 근로단체의 조직과 통일전선운동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
4월남북연석회의 오늘에 다시 본다
통일전선탑과 함께 빛나는 이름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과 민족통일전선
단합과 통일의지를 보여준 통일대회
금강산에서 민족통일대토론회 진행
금강산에서 남북농민통일대회 진행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바라보며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 가지 논제(발췌)
**특집2 -최성홍을 파면하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조선 ≪외교통상부 ≫장관의 망발 규탄
최성홍,장관 자리에서 당장 떼버려야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의 반북대결적인 망발
각계 민중,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 강력 규탄
**6.15공동선언실현**
외국인들을 위한 ≪아리랑 ≫공연 성황리에 시작
제4차 흩어진 가족,친척상봉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을 열렬히 환영한다